

옛 틀을 깨뜨린 예레미야의 기도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33:1-3, 사도행전1:14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종자로 태어나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과 마음을 치유할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육신과 삶이 거듭나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환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 동안 네 명의 왕을 섬기면서 남왕국 유다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조국의 멸망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애가가 있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 보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부르셔서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백성들에게 맞지 않은 제양에 대한 경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 왕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땅에 웅덩이를 파서 집어넣기도 하고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리기도 했다. 형틀 같은 것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는데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 했는데 왜 그런가. 백성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이라고 하셨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 믿기를 바란다. 편하고,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이고 축복의 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제양과 저주, 문제 속에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계속 쌓아놓는 분이 있다. 계속 쌓아두면 바퀴벌레가 나온다. 제양이다. 냄새나고 병든다. 여러분도 그것은 싫고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교만, 불신앙,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음악, 문화, 불순종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다. 그 인생은 결국 제양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봐라. 병든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다.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 마시고 저렇게 예배를 등한시하면 병들고 큰 일 날텐데.’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때리신다. 안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많이 때리신다. 복음이지만 복음을 여러분의 오직 예수로 받아들이실 때 복음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직 예수로 행복하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는 오직 예수로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도’ 하고 돈 ‘도’ 한다. 다른 것 ‘도’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나라, 오늘 성령충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힘들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누님에게 전화가 왔다. 먼 친척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지난번에도 자녀의 급식비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나에게도 전화가 왔다 금금 해서 전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친척을 만났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니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한다. “하나님이 그랬니? 네가 그랬잖아. 너희 할 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네가 그 축복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아니나 다를까 돈 썩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한다. 그런데 어느 성도를 보면 ‘저 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저 분은 정말 축복받겠다.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우리 램েন্ট들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려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힘들겠지만 나에게겐 너무 귀하다.’

갈등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나. 너는 반드시 잘 될거야.’ 갈등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예레미야도 부르짖었다고 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된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 받아야죠.”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르짖으면 된다. 문제 생기면 남편에게 소리치지 말고 주께 부르짖기를 바란다. 엄마에게, 아내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하고 있다.’라고 흰치 보인다. 예레미야가 그때 앗수르, 이집트, 애굽,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국제 정세가 복잡했다. 그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친바벨론파라고 한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말 안 듣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후대들이 그러한 지도자들과 인물이 되기를 축원한다. 요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문제 사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야 하지만,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을 따라야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끼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빼앗겼지만 다 회복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하는 나라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고자 한다.

1. 남유다왕국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옛 틀이다.

(1)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창문을 열고 귀신 들어오라고 한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제양과 저주, 멸망의 영들이다. 그 영들을 계속 불러들이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를 계속 섬겼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축원한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버릇이 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 하나님이 작은 사인을 주시는데, 그 때 알고 정신 차리면 큰 문제 안 생길텐데,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알아채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잘한 것도 반성해야 한다. 잘 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겸손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인을 받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와 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나무에게, 돌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말 안 해.’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실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짜로 먹는다. 물고기도 공짜이다. 운반료만 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키우신다. 쌀도 공짜이다. 우리가 쌀을 자라게 했는가? 햇빛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가꾸고 운반할 뿐이다. 다 공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사는 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2)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랐다고 말한다.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면 ‘나를 멀리 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되고, 백해무익한 것을 다 버리기를 바란다. 우리에게겐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3)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악이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시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 번은 생각해야 한다. 열 번 실수해도 여러분이 한 번은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부모님,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목회자 앞에 예의를 차리는 게 무시위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방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인사도 잘해야 한다. 직장생활, 학교에서 먼저 인사해 봐라. 다 예뻐한

다.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부모님, 어른들, 직장 안에서도 조심하게 된다. 교만한 사람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7명의 램네프처럼 응답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4)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고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 말하고 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지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닌다. 바쁘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앗수르, 애굽에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 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르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앞으로는 명단을 받으려고 한다. 목사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겠다는 명단을 받아야겠다. 그래야지 이 재앙이 해결될 것 같다.(웃음) 멋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기를 바란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왜 결혼이야기를 했다면,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시키는 대로 결혼하면 된다. 30점이면 결혼해라. 70점, 80점 없다. -100점짜리도 많다. 1점씩 높여가면 된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30점 이상이면 무조건 결혼하자고 해라.(웃음)

(5)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이 회망이 없는 사람이다. 잘못을 했는데 남의 잘못만 들추고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회망이 없는 사람이다.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일본사람 발을 밟았는데 밝힌 일본사람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왜 미안해 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발을 잘못 뒀서 당신이 밟았고, 당신이 밟아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깊은가. 복음 빼고는 다 복음적이다. 배워야 한다.(웃음) 상대방이 잘못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하게 하는 내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뛴다고 했는데, 인간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특히 그런 곳이 아니다.

(6) 모든 악한 행위를 하면서 구원 받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레미야 7장 9절-10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만큼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알아야 한다.

2. 이스라엘민족과 국가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새 틀은 무엇일까?

많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1) 남은 자 램네프들에게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릇되기, 부모님, 스승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도 다 부서지고 망했다. 남유다왕국도 망하게 되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후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꿇지 않았다. 언약, 복음만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기만 해도 그 나라는 회복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성전이 부서졌다가 재건되는데 70년이 걸렸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150년 걸렸다. 여러분이 언약전달 잘하면 혹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시 복음전하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줄을 믿는다. 북한이 아픔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다.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 결의를 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념을 받아들여서 재앙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약이 전달되어서 남은 자들이 있다. 지금 북한 안에서 기독교 포로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예비해두신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영세 전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 말씀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돕는 자가 되면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 따라 저리 가

고 이리 가는 것이 아니다. 영세 전에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어렸다. 그러나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누구에게든지 가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시간에 이런 예시를 들었다. 군대 가서 신병교육 때 가끔 “운전면허 있는 사람 손들어.”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 “저기 가서 운전해.” 했는데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것이다. “너 운전면허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 손들었잖아.” 하니까 “저 운전 하고 싶습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뒷통수 두 대 맞고 특수운전면허 따고 나왔다. 무슨 말인가. 자신감있게 도전하면 예뻐한다. 자신감 없어서 내뺄면 안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더 때린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지 않았는가. 준비 되어서 하려면 언제 하겠는가.

(4)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남은 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과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다. 이 나라와 민족에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예언의 말씀을 적어서 왕에게 가져다주니까 불에 태우지 않았는가. 나쁜 것만 예언하니까 불에 다 태우는 것이다. 다시 받아서 전했다. 그런데도 불에 또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다. 한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후대를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나중에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5)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음 전도자들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기를 바란다.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는 변화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러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목회자, 선교사, 다락방과 지교회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이다. 그 사역을 생명을 걸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 운동, 오직 예수 운동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피를 흘렸던 분들 덕분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지켜야한다.
2.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강대국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3. 예레미야의 기도는 약 150년 후에 모두 성취되었다. 조금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란다. 제일 큰 영적인 문제가 조금함이다. 기도에 집중해라. 그것만 해도 시간 없는데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이 해야 할 작은 것에 집중하고,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신앙 할 시간 없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
4.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 램네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작은 준비를 하면 된다.
5. 승리의 길은 with,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ニス되는 것이다. 일산에서 우리가 WRC에 2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거기에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그 언약, 그 기도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중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올인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참사랑교회를 반드시 강건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음 운동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